



2026 VISION

흔한 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여러분은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인정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든 변명하거나 숨기려고 하나요? 우리는 실수하면 혼날까 봐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양은 아끼고, 가난한 사람이 가족처럼 아끼던 어린 양양 한 마리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은 다윗을 향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다윗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하면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죄를 감추는 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명보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잘못을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변명보다 회개를, 숨김보다 정직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 배 순 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공감하시네 다 같 이

말 씬 봉 독 사무엘하 12:1~12절 다 같 이

설 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공감하시네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1. 나단 선지자는 어떤 이야기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했나요?
2.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요?